

## 역하렘물과 미러링 전략의 의미

### —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를 중심으로

김 예 니 \*

#### 요약

대중연애서사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지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웹소설의 연애서사에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화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하렘 서사를 뒤집는 미러링 전략으로 여성의 욕망을 탐색 하는데, 본고에서는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한다. 1990년대 여성문학과 페미니즘의 약진 이후, IMF 경제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공포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토양이 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광범위한 여성혐오적 공격에 맞서 메갈리아는 미러링 전략으로 반격 하는데, 2015년 이후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이러한 미러링을 활용해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고 여성 독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서사 전략을 발전시켰다.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사랑, 결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순차적 서사에 반기를 들고 소유욕에 기반한 독점적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랑과 가족의 형태에 대한 위반의 상상력을 제공한다. 미러링 전략을 통해 기존 웹소설의 클리셰인 연애서사의 성별 위계화를 흔들고, 새로운 결합의 형태에 대한 상상의 공간을 연다. 이는 달라진 여성 독자층의 독서 기대지평 때문이다. 물론,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이 이상적인 사랑과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과 반항으로서, 가능성의 모색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로맨스판타지, 역하렘물, 미러링 전략, 하렘물, 연애서사

\*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

## 목차

1.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과 역하렘물
2. 미러링 전략 : 하렘과 역하렘
3. 성별 전환에 따른 역하렘 서사의 특징
4. 역하렘물의 B급 상상력

## 1.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과 역하렘물

대중연애서사는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랑에 관한 서사물이다. 대중연애서사는 시스 젠더의 이성애와 낭만적 사랑, 그리고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일부일처제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가족 형태를 기본형으로 전제한다. 이 안에 다양한 변주가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단 한 사람을 향한 낭만적 사랑’은 ‘가족 만들기’로 수렴되면서 대중연애서사는 현대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이를 강화한다. 하지만 대중연애서사 역시, 모든 서사물이 그렇듯 무수한 틈새와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시대와 불화하는 대중적 욕망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새로운 모럴에 대한 모색이 대중연애서사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대중 이데올로기나 당대 욕망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는 시대와 불화하는 여성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럴에 대한 모색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현상으로 여성들의 페미니즘적 각성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대중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웹소설 중 여성향으로 분류되는 로맨스/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변화와 균열을 추동했다. 여성 독자의 독서 기대 지평이 변하면서 대중연애서사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최근 여성향 웹소설은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매혹만이 아니라 거부와 저항의 몸짓을 통

해 갈등하고 분투하는 여성 인물과 변화된 클리셰를 보여주면서 여성 독자의 흥미와 미적 스타일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증명한다.

80년대 할리퀸과 90년대 PC통신 게시판 소설, 2000년대 인터넷 소설을 지나 현재 웹소설에 이르기까지 대중연애서사의 창작과 향유 매커니즘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대중연애서사의 클리셰로 활용되었던 여성상과 남성상이 점차 이분법적 젠더의 고정성에서 벗어나고 있고, 서사의 전개도 낭만적 사랑을 초과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탐색으로 나아가 2010년대 후반부터 현대 대중연애서사의 미감은 이전과는 무척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sup>1)</sup> 이제 독자들은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여성을 통해 ‘사이 다물’의 쾌감을 요구한다. 자신의 커리어 성취를 생존과 애정의 동력으로 삼는 여성상이 등장하고<sup>2)</sup>, 여성의 성욕과 섹슈얼리티를 능동적으로 추구 하면서 갈등 극복의 주체로서 여성 인물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전 시기 수동적인 나머지 행동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던 여성 인물들과 대조를 이룬다.<sup>3)</sup> 로맨스의 주된 독자층인 여성 독자의 독서 기대 지평이 변한 것이다.<sup>4)</sup>

‘역하렘물’은 이를 잘 보여주는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하위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역하렘물’이란 하렘물을 미러링한 단어로<sup>5)</sup>, 한 명의 여성 주

1)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7-35면.

2)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 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학과예술』 제39집, 한국문화학과 예술연구소, 2021, 35-58면.

3) 김예니,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난 ‘성적 자기결정권’ 재현의 특징」, 『돈암어문학』 제45집, 돈암어문학회, 2024, 69-98면.

4) 김수아, 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 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9권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189-231면.

5) 네이버 국어사전에겐 하렘물은 등재된 것에 반해 역하렘물은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하렘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자 주인공과 주변의 여러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연애물의 하위 장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남성 지향적인 특징을 띤다. 하렘(harem)이란 원래 이슬람 문화권에 서 남성과 분리되어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을 뜻하나 좁게는 왕이나 귀족이 첩(후궁)들을 모

인공과 다수의 남성 주인공이 이성애적 로맨스를 나누며 남성 인물들이 여성 주인공의 사랑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마지막에는 남성 다수가 여성 인물과 함께 공존하는 연애 서사를 일컫는 용어이다. 물론, 『캔디캔디』<sup>6)</sup>와 같이 한 명의 여성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남성 인물들의 구애가 주된 플롯인 연애서사가 로맨스에는 상당히 많지만 이런 서사를 역하렘이라 하지는 않는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장르적 개념이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 사이에서 역하렘물은 연애대상자인 여러 남성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여성 주인공 스스로가 복수로 열어 둔 경우에 한정하는 경향이 우세하다.<sup>7)</sup> 이에 따르면 한 남성 인물과 사랑의 성

아 놓은 별칭을 가리킨다. 하렘물이란 여러 여성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하렘에 비유한 표현이다. 외모, 재력, 학업 성적 같은 면에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남성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고, 여자 주인공들은 남자 주인공의 숨은 매력(예: 주변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좋다, 소박한 꿈을 위해 노력한다)을 알아차리면서 호감을 느끼고 때로는 남자 주인공을 두고 경쟁이 일어난다는 줄거리를 기본 틀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다. '하렘물'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하렘과 할렘(Harlem: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흑인 빈민가)의 일본어 발음이 비슷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로 하렘과 할렘은 각각 ハレム과 ハーレム으로 표기한다.”

- 6) 한 명의 여성 주인공을 여러 남성 인물들이 사랑하게 되면서 구애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플롯의 대명사가 되는 작품으로 1976년 일본교육텔레비전와 도에이동화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17612&cid=40942&categoryId=39945>

(검색일자: 2025.02.26.)

- 7) 한국에서 서브컬처와 대중문화 영역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나무위키(namu.wiki)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홍일점이거나 캐릭터들의 구성이 남초이거나 여주인공에게 남자가 많이 꼬이거나 해도 여주인공이 그 남성 캐릭터들 누구와도 연애하지 않거나, 그들 중 한 남자와 확실하게 1:1로 연애하며 커플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그냥 주인공의 동료거나 단순히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 또는 완전히 남남인 경우는 역하렘물이 아니다. 남주(수)가 등장하고 남주에게 남자(공)가 많이 꼬이는 BL 작품일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역하렘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BL 작품에는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미 BL 팬덤 내에서 완전히 정착한 '다공일수(한국)'와 '총수(総受)'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이다. BL 작품의 역사는 하렘물이 보급되고 여성향에 수입되어 역하렘물이 생긴 시기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나온 이 단어가 소급되어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주인공이 공인 BL 혹은 니어 BL 작품에서 남주(공)에게 남자(수)가 많이 꼬이는 작품(이런 작품은 드물지만)은 하렘으로 부르기도 한다.”

취로 결론 맺는 플롯은 역하렘물에서 제외한다. 본고의 ‘역하렘물’도 일부 일처제의 공식을 파괴하고 가부장적 질서로 귀결되지 않는 여성의 다자 연애를 역하렘물이라 한정하겠다.

이렇듯 일부일처제의 공식을 깨는 ‘역하렘물’은 최근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의 서사에서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는 결혼, 섹스, 재생산, 육아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순서의 붕괴를 보여주기도 하고, 여성 주인공의 섹슈얼리티 탐색 여정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긍정과 확장을 자유롭게 도모한다. 남녀 간의 결혼, 임신, 출산이 반드시 육아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부의 사랑과 결혼생활은 서로에 대한 소유욕에 기반한 독점적 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성적 타락이 문제되지 않는 채 여성 주인공은 복수의 남성과 다양한 관계 맺음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역하렘물이 로맨스판타지에 많은 것은 현대물보다 개연성에서 자유롭고, 판타지물 자체의 세계관에 기댄 가상의 시공간이 전제되어 있어 역하렘물의 새로운 실험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재하고 있는 역하렘물은 로맨스 판타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여성 주인공을 둘러싼 다수의 남성 인물과의 동시적 연애라는 설정이 지닌 윤리적 부담을 낮추고 서사적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서양 중세를 닮은 가상의 시공간과 신분제를 배경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역하렘물’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역하렘’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하렘의 남녀 성역할을 바꾸는 역(易)하렘물은 미러링의 전략으로 하렘을 역전시켰다. 역하렘물의 미러링 전략은 무엇을 바뀌었으며,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역하렘물을 읽는 여성 독자의 욕망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렘물의 역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이며 역하렘물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이 보여주는 현실 세계와의 간극을 확인하면서 어떤 위반과 전복의 상상력을 보여주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하렘물은 걸크러시 여성인물과 다

자간 사랑의 연합을 보여주는데, 역하렘물의 여성 인물이 지닌 특징과 유일한 낭만적 사랑이 아닌 다자간 사랑의 결합 형태로서 등장한 결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걸크러시 여성 인물은 새롭게 향유되는 여성 인물의 특징과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탐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하는 결혼의 형태가 이전의 유일했던 낭만적 사랑과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의 양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결혼의 새로운 형태를 탐색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역하렘물이 같은 맥락과 층위에서 평가될 수는 없지만 최근 인기를 얻은 작품 중 『하렘의 남자들』<sup>8)</sup>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sup>9)</sup>는 주목해 볼 만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로맨스 판타지에 속하는 역하렘물로 사랑과 성공적인 모험이 모두 서사의 주된 모티프가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근대적 개념의 사랑에 관한 관념과 일부일처제라는 결혼관습을 뛰어넘는 다양한 결합의 형태를 보여주고, 기존 여성성의 고정화된 이분법적 분류에서 벗어난 연애서사의 여성 인물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준다.<sup>10)</sup> 더불어,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두 작품 모두 걸크러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야망이 있는 여성, 악녀라 불리는 여성, 절대 권력을 가진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다자간 사랑의 결합과 여성의 모험 성공담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중심으로 최근 연재되고 있는 역하렘물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르적 실천을 알아보고 이를 징후적으로 해

8) 『재혼황후』를 쓴 알파타르트의 웹소설로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되었다. 2020년 3월 1일에 1화를 시작으로 2023년 2월23일 891화로 완결된 로맨스 판타지로 이후 2023년 6월30일 1000화를 마지막으로 외전이 끝났다.

9) 작가 이너의 웹소설로 2019년 1월19일 1화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16일 225화로 완결되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었고 2020년 5월12일 외전 12화로 연재가 완료되었다.

10)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면.

석하여 역하렘이라는 모티프와 서사 전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미러링 전략 : 하렘과 역하렘

‘사랑’은 욕망, 감성, 신념 그리고 비전을 통해 사회화 기제로 작동하면서 현실주의적 질서를 재창조한다.<sup>11)</sup> 이런 사랑에 대한 지배 담론을 재생산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회의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1990년대 성산업 팽창과 함께 섹슈얼리티의 실천과 낭만적 사랑의 상관성이 부정되는 성담론이 확산되면서 기존 연애 서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낭만적 사랑의 붕괴와 제도적 결혼의 위기, 그리고 친밀감에 기반한 새로운 결합의 형태 등이 나타난 것도 1990년대의 일이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초반 리비도의 억압으로부터 성적 쾌락의 해방을 강조하는 성해방담론과 이에 맞서는 여성들의 저항과 비판, 그리고 새로운 여성 섹슈얼리티 탐색을 위한 도전이 서로 응전하며 각축을 벌이는 과정과 연관이 깊다. 1990년대 초 성해방담론의 유행과 성산업의 팽창은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 섹스할 자유를 강조했지만 이에 여성은 섹스하지 않을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로 당대의 성해방담론을 비판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 해방의 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문학은 여성 작가의 대거 등장으로 그전까지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랑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가족에 대해 주목했고 여성의 삶과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하였다. 1990년대의 이런 변화는 페미니즘의 진전이라는 현상이 만들어낸 것이다.<sup>12)</sup> 1990년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당대의 담론들과 경쟁하며 사랑과 결혼, 가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11)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46면.

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1-307면.

주제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의 중요함과 제도적/문화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천을 이끌었고 문학장에서도 여성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과 여성 독자의 호응은 한국 문학의 변화를 선도하였다.<sup>13)</sup>

하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 경제위기담론과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2000년대 여성혐오문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했다. 2006년 ‘된장녀’를 시작으로 각종 ‘~녀’가 유행하면서 여성 혐오 문화가 일종의 밈처럼 소비되기 시작했고 소수의 과격한 무리였던 ‘일베’의 여성 혐오에 기반한 놀이 문화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었으며 여성을 향한 폭력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소수자들을 겨냥해 범죄에 버금가는 폭력성을 드러냈다. 여성을 향한 혐오 문화와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저항이 조직되어 메갈리아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러링 전략을 통해 미소지니(Misogyny)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러링 전략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재전유하려는 대항 발화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유행했던 노르웨이 작가 게르 브란텐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이 남녀 성역할이 역전된 판타지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화주의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여겨지는데, 메갈리아는 그 이름처럼 『이갈리아의 딸들』의 세계관에 착안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미러링 전략을 통해 여성혐오를 비판하며 여성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저항을 조직했다.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다양하지만, 평가 이전에 우리는 젊은 여성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이 왜 미러링 전략을 채택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여성들이 선택한 미러링의 목적은 여성 혐오적 발언을 수행하는 남성 청자를 향한 메시지 전달을 초과한다. 미러링은 이를 수행하는 여성

13) 성폭력특별법제정에서부터 호주제폐지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 것도 199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라 할 것이다.

집단을 정치화하는 역할에 더 적극적이다. 여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신자가 되는 것이다.<sup>14)</sup> 거울기법이 노리는 전략은 내 삶에 대한 객관화와 이에 대한 주체적인 개입이다. 여기서 미러링은 청자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활동이며 더 나아가 청자와의 소통 결별 의지를 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sup>15)</sup> 미러링은 ‘감히 여성이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형식을 취하는 과격성 덕분에 당시 큰 충격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다.<sup>16)</sup> 여성에게 여성성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미 차별적인 여성 혐오가 함축되어 있다. 고정화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여성성을 제한하여 요구하기에 기존의 여성성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들은 배제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는 여성에게 하나의 억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에게 여성혐오에 대한 저항은 바로 여성 차별적인 위계적 젠더 체계와 그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sup>17)</sup>

2015년 이후 디지털 공간 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미러링의 전략을 최근 판타지 로맨스의 역하렘물의 서사 전략과 겹쳐 살펴보면 성역할 역전을 통해 역하렘물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역하렘물을 둘러싼 여성 독자들의 독서 욕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하렘물은 하렘물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이성의 다양한 매력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팬덤을 형성한 서사물이다. 하지만 역하렘물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 하렘의 역전이기에 역하렘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렘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렘물은 최근 판타지나 이세계물로 확장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고등학교를 주된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애서사였다. 남성주인공은 처음 ‘평범남’, ‘초식남’, ‘소심남’이었다가 차

14) 안재경, 민영, 「소통전략으로서 미러링의 효과 관점 수용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5호, 한국언론학회, 2020, 50면.

15) 위의 논문, 68면.

16) 위의 논문, 55면.

17) 조주현,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위마드'의 정치전략과 젊은 여성주체들」, 『페미니즘연구』 제19권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9, 152면.

춤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하렘물의 특성상 다수의 여성에게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조건과 개연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능남’, ‘능력남’으로 기울어져 갔다. 하지만 하렘물에서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독서욕망은 얼마나 많은 미소녀가 얼마나 다양한 매력으로 남성 주인공을 유혹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성향 서브컬처인 하렘물을 향유하는 독자들이 즐기는 것은 여러 여성 인물의 다양하지만 클리셰로 고정된 여성적 매력이다. 유형화된 여성의 매력들은 쉽게 대상화되는데 이는 타인을 존재가 아닌 몇몇 기호로 패티시(Fetish)화 하여 성애적 대상으로 소비하기를 유도한다.<sup>18)</sup>

대표적인 하렘물의 클리셰는 대개 여성 인물과의 만남이 성희롱으로 오인될만한 에피소드에 주인공이 얽히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물은 남성 주인공과 이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남성 주인공에게 자신의 여성적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을 성적 판타지에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때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매력은 청순함, 귀여움, 관능미 등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유형화되어 있고 여성들의 남성 주인공을 향한 구애 방식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해진 패턴을 따른다. 다양한 여성 인물의 유형화된 매력 그 자체가 이미 클리셰이고 이것이 하렘물의 특징이다. 그리고 하렘물의 결말에 남성 주인공과 연애 관계에 안착한 여성 인물들은 이 연애 서사의 남성 주인공이 차지하는 트로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하렘물은 하렘물의 클리셰를 전제한다. 하지만 역하렘물이 하렘물의 단순한 성역할 역전에 그친 것은 아니다. 역하렘물은 미러링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미러링되는 대상은 하렘물,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수 여성 인물의 여성성이라는 클리셰이고, 역하렘물은 이를 역전하는 과정에서 젠더 이분법적 사회를 위반하는 또 다른 상상력을 보여

18) 이민주, 「매갈 밥줄 끊기의 역사: 온라인 소비시장에서의 백래시와 남성 소비자 정치」, 한국여성학회 기획, 『디지털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2024, 60면.

준다. 역하렘물은 가부장제의 지배적 담론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역하렘물의 여성 주인공을 통한 대리만족과 집합적 효능감을 목적으로 한다. 역하렘물의 미러링전략은 과거 디지털공간에서의 미러링 전략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 혐오적 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공간을 열면서 여성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 구성의 작업은 혐오와 부정 속에서 매우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정체성으로의 변화는 기존 담론의 변화와 재구성을 요구하는데, 기존의 사회적 권력과 지식이 만들어내는 지배적인 가치와 이를 통해 누리는 향유의 방식을 탈접합하고 새롭게 재접합함으로써 기존 사회의 폭력성을 재현<sup>19)</sup>하고 이를 비판한다.

그래서 역하렘물은 분명 하렘물의 성별 역전의 서사전략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서사물의 결과는 하렘물과 같을 수는 없다.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시스젠더의 이성애적 관계를 기본형으로 끊임없이 여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속성에 도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험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역하렘물은 가부장적 지배 질서에 대한 위반의 상상력을 제공한다. 인물의 성별이 역전된 설정일 뿐이지만 여성향 웹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다수의 남성 인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결합을 추구하는 방식은 하렘물의 그것과 같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역하렘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미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변화하는 젠더 지형과 그에 부응하는 대안적 남성성의 부재 속에서 형성되는 젠더 갈등은 새로운 성적 관계의 각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이 더 크다는 것을 경쟁하는 구도로 갈등을 전개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사회였다.<sup>20)</sup> 하지만 로맨스 판타지의 세계

19) 윤상호, 「정신분석 담론을 통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 분석-라캉의 네 가지 담론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통권5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85면.

20)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의 저항: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

관에서는 미리링 전략을 통해 현실사회를 비추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이 역전되었을 때 어떤 것이 가능해지는지 탐색하는 스토리텔링이다. 로맨스 판타지의 미리링 전략은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의 공간이라 할 것이다.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는 현재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하렘의 남자들』은 황녀가 황제가 되면서 하렘을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성이 황제이며 절대 권력 속에 다수의 후궁을 거느린다는 설정이다. 후궁으로 들어온 다양한 매력의 남성인물들은 후궁 중 누가 국서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암투와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황제와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며 황제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는 게임병의물이자 역하렘물로 황제 다음의 권력을 가진 희대의 악녀인 황녀의 몸에 게임 세상 밖 주인공이 게임 속 조연 캐릭터에 병의되어 게임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게임 유저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우위를 무기로 다수의 남성을 후궁이나 첩으로 들이고 있으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 사람과 낭만적이고 유일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모두와 공평한 사랑을 나누려 노력한다. 그리고 여성 주인공에게는 사랑의 결실보다 더 중요한 모험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고 남성인물들은 여성 인물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그녀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성역할이 바뀐 역하렘물들을 통해 로맨스 판타지가 보여주는 상상의 세계가 가진 의미와 여성 독자의 기대 지평, 그리고 서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8, 1-31면.

### 3. 성별 전환에 따른 역하렘물의 특징

#### 1) 여성성의 확장과 걸크러시

『하렘의 남자들』의 주인공 라트라실(이하 라틸)은 황녀였지만 신관이 되길 원하는 황태자의 왕위 포기로 황태녀가 되고 이에 반발한 이복오빠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절대 군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성의 자질로서 피를 나눈 혈육관계인 이복오빠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냉혹하고 엄격한 군주로서 라트라실은 반란군과 이복오빠 틀라를 처형한다. 이는 라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대중들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여성성을 전복하여 성별이 여성이어도 기존 황제들과 다름없는 강력한 통치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라틸은 강한 권력욕을 가진 인물이고 그 어떤 것에도 지기 싫어하는 호승심을 가진 여성으로 자유분방하고 자락이 뛰어났다. 거기에 무술 실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거침없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걸크러쉬 여성 인물로서 라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간다.

황제에게 후계자는 중요하다.

라틸은 그들이 첫날 어전회의에서 후계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분이 상한 건 아니었다. 라틸이 기분 나쁜 건, 은근히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황후는 물론 후궁을 여럿 두고 후계자를 낳을 수 있던 선헌제들과 달리, 폐하께서는 한 분의 국서밖에 들이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빨리 국서를 맞이해 황가의 안정을 피해야 합니다.”

“폐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후계자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

니다.”

“조속히 국서를 들이는 일에 치중하소서.”

(중략)

하지만 대신들이 눈앞에서 ‘여자 황제이시니 후궁은 못 들일 것’이라는 전제를 아예 깔아둔 채 국서 이야기를 하고 있자 괜히 오기가 들었다.

라틸은 황태녀 시절에 역대 어전회의 기록을 몇십 번이나 읽었다. 특히 첫날의 어전회의에 관한 부분은 최근까지도 계속 읽어서, 거의 달달 외울 지경이었다.

그 모든 어전회의에 황후와 후계자에 대한 독촉이 나왔고, 후궁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나는 한 명의 국서만 맞이하라고? 여자황제는 후궁이 없다고?’

대신들이 먼저 후궁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좀 달랐을까. 그건 겪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만들지 않을 거라 여기니 꼭 만들고 싶어졌다.<sup>21)</sup>

위의 인용문은 어렵게 황제의 자리에 즉위한 후 라틸이 주재하는 첫 어전회의의 모습이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서 책봉에 관한 것으로 라틸은 신하들의 논의를 보면서 위화감과 불편함을 감지한다. 라틸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당연히 여성 황제는 기존의 남성 황제와 다르게 한 명의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전제였다. 그들이 그전에 수많은 후궁과 첩을 들이도록 권했던 근거가 왜 황제가 여성인 순간 달라져야 하는가 라틸은 저항감을 느낀다. 이에 라틸은 “그래서, 우선 후궁들을 들이기로 하였다. 우선은…한 다섯 명 정도만 들이지.”라고 말한다. 미러링의 전략이 시작되는데 여성이 그럴 수 없다고 여기는 전제부터 공격적으로 뒤집으면서 남성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고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정당성의 논리로 제시한다. 인용문을 보면 남성관료들이 당연하게

---

21) 알트하르트, 『하렘의 남자들』 중 8화 「일단 후궁부터 들이겠다」의 일부분

생각하는 성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하렘의 남자들』은 이 전제를 전복함으로써 장르이자 클리셰인 역하렘 서사를 통해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라틸은 경악하는 (남성) 귀족들에게 “황제가 황후 하나만 두면 외척 세력이 지나치게 힘을 키우니,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른 후궁들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건 늘 대신들이 아니었소?”라고 반문하고, “경들 역시 내가 후궁을 여럿 두는 편이 좋을텐데? 그래야 황제 머느리를 둘 경쟁이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소?”라며 회유한다. 그리고서는 서기관에게 자신이 후궁을 다섯만 두거든 “라트라실 황제는 ‘고작’ 후궁이 다섯 명 뿐이었다.”고 기록하라 명령하고 국서와 사이가 껍 좋으면 ‘순애보’라 기록해도 좋다고 말한다. 정절을 요구받는 여성성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여성이 아닌 왕으로서 대하라는 요구이다. 이어 라틸은 첫 연인이자 이웃 나라 황제가 된 하이신스에게 외교적 동맹의 의미에서 후궁 한 명을 보내라 요청한다. 하이신스가 황제가 된 후 정치적 권력 관계와 정국 안정을 위해 힘 있는 자국 귀족의 딸과 국혼을 하고 연인인 라틸에게는 후궁을 제안한 것에 라틸은 같은 방식으로 갚아 준다. 이에 하이신스는 분노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하렘물에서 남성 주인공이 여러 여성과의 만남과 연애 경험을 갖는 것이 문제될 것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남성의 연애에 너그러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하렘물은 남성의 연애에 너그럽고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에 저항하는 여성주인공을 통해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혼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여성 주인공의 이런 선택에 당황하고 불만을 갖지만 권력자가 기존 자신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복수하는 것에 대항할 명분을 잃는다. 이는 최근 ‘사이다물’에 대한 독자의 선호이면서 로맨스 판타지를 읽는 여성 독자들의 대리만족을 이끈다.

라틸은 황제가 되어 후궁을 맞이하고 후궁이 된 남성 인물들은 라틸의 눈에 들기 위해 매력을 경쟁하며 라틸의 특별한 사랑과 국서로서의 선택

을 희망한다.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이 차지하는 권력의 위치가 달라지니 고유한 성역할도 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성역할이란 태고난 성별이 아닌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반영임을 보여준다. 라틸은 하렘을 선포하고 공평하게 하렘을 관리하면서 다자간 사랑을 유지하는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도 자녀의 주양육자는 엄마가 아닌 아빠의 몫이 되고, 후궁들은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후계자 교육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여성 후궁을 둘러싼 궁중 암투가 남성 후궁들에 의해 재현되는 미러링은 기존 서사물의 여성끼리의 질투와 암투가 여성성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남성성, 여성성은 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 중 라틸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뱀파이어 로드라는 초현실적인 존재이며 500년이라는 시간을 환생하며 이어져 온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적들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각성하게 되는 모험을 펼친다. 당장의 낭만적 사랑보단 자신의 권력과 생존, 그리고 자기 후궁들을 지키기 위한 모험에서 라틸은 적들에 분노하면서도 냉정하게 전략을 세우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판타지 세계의 모험에 주저함 없이 나선다. 능력과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지만 거짓 선동과 음모에 휩싸이면서 또 다른 존재로 신분이 낮아진 여성 주인공은 자신을 증명하고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며 한층 강하게 성장한다. 높은 자리에서 다시 신분이 박탈된 존재로 하강하여 왕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그가 맺은 관계성이 권력관계에만 의지한 관계가 아님을 반증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된다. 역하렘에서의 여성은 남성적 자질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능력과 덕성이 있는 고유한 존재로서 이분법적 여성성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단순히 권력을 선취함으로써 성역할을 뒤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격 매력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닌 자기 자신의 덕성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다 권좌의 회복을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 인물이 기존 여성성에 제한되지 않는 자질을 보여주며 모험을 통

한 능동적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은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의 여성 주인공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여성 주인공 ‘나’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게임 속 여성 조연의 몸에 빙의된다. 그녀의 이름은 엘드리아로 이분법적 젠더 규범에서는 마녀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권력을 무기로 많은 남성들을 대상화하고 성적 착취를 일삼으며 자신의 쾌락에 전념하는 여성인데, 그녀에게 빙의된 여성 주인공은 지금껏 그녀가 저질러온 타자에 대한 대상화와 성적 착취를 멈추고 이를 바꿔내려 애쓴다. 성적 대상화와 착취를 멈추고 인간적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분투하는 여성 주인공은 하렘물의 미러링이라 할 수 있다. 역하렘물에도 유형화된 남성 인물들이 다양한 매력으로 여성 주인공과 사적 친밀감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하렘의 남자들』이나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는 대상화를 하지 않거나 이를 멈추고 되돌리며 함께 모험을 떠나는 동지적 관계를 맺는다. 단순히 성애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성장과 모험을 함께 하는 연인이자 동료로 관계를 확장해가는 것이다.

이렇듯 역하렘물에서 미러링은 기존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과 동시에 걸크러시 여성주인공을 통해 당대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진 모순을 뒤집어 새로운 여성상을 중심으로 여성 독자에게 ‘사이다물’로서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과거 연애 서사의 여성 주인공들이 주로 감상적 반응을 중심으로 내면의 서사를 보여주면서 사건의 진척과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클리셰가 있었다면 역하렘물은 하렘의 미러링일 뿐 아니라 기존 여성향 연애 서사의 수동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여성독자들에게 대중문화 속 여성 인물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연애 관계의 확장과 성적 대상화 없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모색을 보여준다.

## 2) 성별 위계를 흔드는 새로운 결합 양상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역시 『하렘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주인공 엘드리아는 황녀의 신분으로 강력한 신분적 우위를 지녔다. 그녀는 빙의 전 악녀였던 과거의 악행들을 바로잡아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작중 악역인 유리엘이 차지하려는 7명의 남성 인물들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이후 게임 시스템의 신까지도 공략하여 황제가 되고 일곱 명의 후궁들과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엔딩을 맞이한다.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와 『하렘의 남자들』은 모두 일처다부제와 같은 ‘다갈살(엔딩)’, 혹은 ‘하렘 엔딩’ 클리셰를 이용했다. 하렘 엔딩이란 과거 로맨스 서사에서 보편적이었던 한 사람과의 유일하고도 낭만적인 사랑, 결국 찾아낸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도 소외되지 않고 서사를 완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 여성 주인공을 둘러싸고 다자간 연애를 실천한다. 대체로 이런 설정은 역사물, 이세계물, 서양 판타지, 무협을 기반으로 하는데 불륜서사와는 구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에서 하렘 엔딩을 맞이하는 경우, 무엇보다 하렘을 관리하는 여성 주인공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성 인물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질투하고 반목하며 소통하지 않지만, 결말에서는 이들 간의 화해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정, 그리고 질투 없는 다자간 결합을 통한 사랑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여성주인공은 자신의 권력이 남성 인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한다.

“제 궁 마련해주세요. 오늘부터 궁에서 살 거니까.”

“상단은 어찌고?”

“저보다 더 가질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고 왔습니다.”

“아, 전에 봤던 그 여자?”

“예. 불만 있습니까?”

“언제 한 번 궁으로 불러야겠군.”

“그래서 저한테 궁 내어 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뭘 물어. 이미 네 궁은 마련해 뒀다.”

그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세상에. 진심으로 몰랐던 모양이다.

“언제 들어오겠다고 하려나, 설마 안 들어올 건 아니겠지, 내가 얼마나 그 걱정으로 밤을 지새—.”

“뭍습니다, 진짜!”

“황제의 명령이란 게 강제성이 있다보니, 나도 내 댄에는…….”<sup>22)</sup>

위의 인용문은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의 완결편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모든 모험을 마치고 황제에 즉위한 여성 주인공이 잠시 떨어져 지낸 정부의 거처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다.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권력이 가진 강제성을 걱정하여 연인들에게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노력한다. 이는 여성 주인공이 권력을 전제한 관계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자적 사랑, 열린 관계에 참여하는 연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하렘물에서 남성 주인공은 초기 베타 메일에서 ‘알파남’으로 변하면서 최근에는 개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선택을 받을 자격으로 지능, 힘, 재력 등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성장과 성공에 따른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가 남성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되면서 여성들은 트로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남성 독자들에게 현실에서의 경쟁과 보상을 성애적 판타지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선택받을 자격과 능력의 문제는 역하렘도 동일하다. 하지만 역하렘물은 하렘물과 다른 방식

22) 이니,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중 225화

으로 이를 변형하거나 변주하는데, 역하렘물은 높은 신분으로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설정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모험을 통해 신분이 박탈되고 어떤 우월한 조건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다시 증명하는 과정에 놓인다는 것과 그때 연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능력이 지능이나 무력적 우위에서가 아니라 성품적 덕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역하렘물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선택을 받으려는 남성 인물의 경우, 남성성이나 외모의 우월함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었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하렘물이 유형화된 여성성 제시와 남성 능력에 따른 연애 관계의 다수 획득이라는 능력주의적 서사로 이어진다면, 역하렘물은 미러링 전략을 통해 이를 역전함으로써 성별 위계화를 흔든다. 그리고 능력 대신 헌신과 사랑, 그리고 대상화가 아닌 개별 인물들의 주체성 존중으로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간다. 그 중 또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여성향 웹소설인 로맨스 판타지 역하렘물에 ‘하렘 엔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 역하렘물의 경우, 여러 경쟁자 중 결국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서사의 결말이 이뤄졌다면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은 경쟁적 관계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 않고 남성 인물 간의 위계화 없이 하렘 엔딩으로 결말을 맞는다. 판타지적 기제로서 ‘배제 없는 사랑’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달라진 여성 독자들의 독서 기대 지평을 보여준다. 여전히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의 댓글에는 이런 엔딩을 불편해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각기 응원하는 남성인물이 있거나 여성인물의 걸크러시적 자질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자극적인 볼거리와 여성 인물의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경험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로맨스 판타지라는 세계관 속에서 현실이 아니라는 설정과 역하렘이라는 클리셰가 만든 안전장치가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안전지대 안에서 여성 독자들은 다양한 성적 실천과

일부일처제를 뛰어넘는 남녀 결합의 또 다른 유형을 간접 체험하고 평가한다. 현실의 일부일처제의 절대성을 흔드는 판타지적 도구로서 유일한 사랑을 상대화하여 다자간 연애와 소유욕에 기반하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외전이 그냥저냥 임신해서 육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ㅜㅜㅜㅜ로판만 보면 연애 끝에 다 임신육아만 있는 줄;;”(ID:치킨치킨), “오늘 난 깨달았다. 남편은 여섯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구나”(ID: 라.만보면우는영혼) 등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을 읽은 여성 독자들은 여성의 사랑이 임신과 육아로 이어지는 기존 로맨스 서사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역하렘물의 특징을 인지하고 낭만적 사랑과 결혼, 그리고 임신과 육아로 이어지는 로맨스 서사의 정형성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기존의 성적 규범에 한정될 수 없는 것임을 간접 체험한다. 1999년 은희경이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 “둘은 불안하며 셋으로 나누어 무게를 짊어지면 상실과 고통도 덜하다.”라며 비독점적 연애를 이야기할 때 이는 절대적인 관계에 상처받은 여성 주인공이 절대적이지 않은 세 명의 연인을 둬으로써 사랑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는 서사였다. 하지만 현재 서브컬처에서 나타나는 역하렘물은 상처 없이 여성 욕망을 긍정하고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탐색한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가 아니라 기존 여성성의 한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두 작품을 통해 살펴본 최근 역하렘물의 특징은 그 자체로 하렘의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남성 중심의 질서에 대한 흔들기와 방향전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등장하면서 역하렘물은 단순한 연애 서사를 넘어 여성의 욕망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별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고, 연애와 결합의 방식을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4. 역하렘물의 B급 상상력

유형별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인물에 따라 사랑의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은 한 명의 히로인을 쟁탈하기 위한 연애 서사의 오랜 문법이었다. 하지만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는 한 명의 ‘히로인 쟁탈전’, 유일한 연인 만들기에 머물지 않는다. 여성 주인공은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고 이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를 펼치려 한다.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고정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성역할 역시 미리링 된 설정을 전제로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위반의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능력과 신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지향적 덕성을 통해 연인들의 자발성을 요구하고 남성 인물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 주인공의 모험 성공을 위해 남성 인물들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결국 여성 주인공은 남성 인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이때 사용되는 미리링 전략은 성역할 전전과 함께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진 허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는데 상상력을 제공한다.

더불어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복수의 사랑, 열린 관계로서 다자간 결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하렘 엔딩’이라고도 하는 이 결말은 일부일처제의 부르주아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소유욕과 질투를 지나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시스젠더의 이성애라는 전제에는 달라진 점이 없지만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이 보여주는 다자간 결합의 양상은 가부장제의 일부다처제, 혹은 부인 공유의 형태인 일처다부제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여성 주인공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강압이 아닌 자율적 선택을 통한 연합의 가치를 추구한다. 하렘의 남자거나 정부이지만 그들은 성에서 벗어나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 특화된 능력으로 여성 주인공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성취를 높이

고 결국, 함께 했던 모든 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결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문학 내 낭만적 사랑에 대한 회의가 재현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은 가능한가 질문한다면 기존의 사랑과 연애가 아닌 새로운 모델의 탐색과 실험은 대안적 사랑과 결합, 그리고 친밀감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참신하고 기발한, 그래서 규범에는 벗어나지만 흥미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대중연애서사는 한국문학의 하위문화로서 존재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세례 이후 하위문화라는 말 자체가 무척 촌스러워졌고, 문학연구에서 웹소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네이버에서 ‘웹소설’이라는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이다. 현대 소설이 현대 사회를 사는 인간 삶의 한 단면을 통해 사회와 생의 모순과 부조리를 깨닫고 인간에 대한 통찰을 넓히며 비판적 사고와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웹소설은 지배담론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이미 도착한’ 새로운 사회와 인간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웹소설이 보여주는 대중연애서사, 특히 여성향 웹소설이 보여주는 독자의 기대지평이란 이분법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여성상, 새로운 남성상에 대한 요구이다. 더불어 현실의 사랑, 연애, 결혼,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남녀 결합의 양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욕망이다.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이를 하렘을 역전하는 미러링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과 새로운 결합의 양상을 보여줬다. 이는 이상적인 관계라기보단 소위 ‘B급의 상상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저 수많은 매력적인 남성 인물에 둘러싸인 상상만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는 리비도의 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난봉소설 속 애정 관계도 ‘도리나 예의에 어긋나는 허랑방탕한 짓, 흔히 주색잡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었고 ‘봉건 사회의 유교적 도덕 관념으로는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도 난봉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난봉소설이란 사회 이념에 반하는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보여주는 서사였다. 또, 근대 연애소설에 나오는 열정적 사랑은 ‘감정의 해방’과 함께 가부장에 의해 배우자가 결정되는 가족 구속적 결혼의 시대에 자유로운 두 개인의 만남이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지배 테올로기와 불화하는 상상력에 기반했다. 그리고 1990년대 유행했던 불륜서사는 가정으로부터의 탈주와 성적 일탈을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색과 억압된 섹슈얼리티의 해방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런 맥락에서 웹소설 중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은 사랑, 결혼, 임신과 출산이라는 순차적 서사에 반기를 들고 소유욕에 기반한 독점적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랑과 가족의 형태에 대한 위반의 상상력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전복적인 측면이 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떤 이상적인 완성형을 제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한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끊임없이 행위를 억압하는 구속성을 뛰어넘는 반항을 통해 구성되고 이뤄가는 사회인 것이다. 로맨스 판타지의 역하렘물도 이상적인 사랑과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애 서사에서 ‘운명적인 단 한 사람과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공식에 대한 도전과 반항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 참고문헌 |

- 알파타르트, 『하렘의 남자들』, 네이버시리즈, 2020.3.1.-2023.6.30.
- 이늬,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카카오페이지, 2019.1.19.-2019.11.16.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1-307면.
- 김보명,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의 저항: 〈일간 베스트〉, 〈메갈리아〉, 그리고 〈위마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8, 1-31면.
- 김수아, 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 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9권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189-231면.
- 김예니, 「대중서사 속 ‘클리셰’의 변화양상-로맨스 웹소설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42집, 돈암어문학회, 2022, 7-35면.
- 김예니, 「로맨스 웹소설에 나타난 ‘성적 자기결정권’ 재현의 특징」, 『돈암어문학』 제45집, 돈암어문학회, 2024, 69-98면.
-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 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예술』 제39집,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21, 35-58면.
-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면.
- 안재경; 민영, 「소통전략으로서 미러링의 효과 관점 수용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4권5호, 한국언론학회, 2020, 50면.
- 윤상호, 「정신분석 담론을 통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 분석-라캉의 네 가지 담론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통권50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385면.
- 이민주, 「메갈 밈들 낚기의 역사: 온라인 소비시장에서의 백래시와 남성 소비자 정치」, 한국여성학회 기획, 『디지털시대의 페미니즘』, 한겨레출판, 2024, 60면.
- 조주현,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위마드’의 정치전략과 젊은 여성주체들」, 『페미니즘연구』 제19권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9, 152면.
-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46면.

<Abstract>

## The Meaning of Reverse Harem and Mirroring Strategy

: Focusing on *The Men of the Harem* and *It Looks Like I Fell  
into a Reverse Harem Game*

Kim, Yaeni

Popular romance narratives reflect social ideologies, but shift and transformation have emerged following 'new' feminism called as "the feminism reboot" especially since 2015. Among them, the 'reverse harem' in romance fantasy subverts the traditional harem narrative through a mirroring strategy, exploring female desire. This study analyzes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focusing on *Men of the Harem* and *It Looks Like I've Fallen into a Reverse Harem Game*.

After the boom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feminism faced backlash due to the crisis discourse surrounding the IMF financial crisis. In the neoliberal era, widespread misogynistic attacks intensified, and in response, Megalia countered with a mirroring strategy. Since 2015, reverse harem narratives in romance fantasy have utilized this mirroring approach to critique patriarchal structures and develop narrative strategies that reflect female readers' desires.

Reverse harem narratives in romance fantasy challenge the conventional sequential narrative of love, marriage, pregnancy, and childbirth. They question possessive and exclusive love based on ownership and provide a transgressive imagination of new forms of love and family. Through the mirroring strategy, they disrupt gender

hierarchies and envision alternative forms of relationships, a reflection of the evolving expectations of female readers. While reverse harem narratives in romance fantasy do not necessarily depict an ideal form of love or family, they hold significance as acts of resistance and defiance.

Key words: Romance fantasy, Reverse harem, Mirroring Strategy, Harem, Romantic narrative

투 고 일: 2025년 2월 27일

심 사 일: 2025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16일

수정마감일: 2025년 3월 28일